

올해 첫 일본뇌염 모기 발견 '주의보'

지난해 일본뇌염 환자 23명...사망자 4명 피부 노출 최소, 진한 향수 등 자제해야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일본뇌염 유행 예측 사업을 통해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최초로 발견되면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3월22일이었는데 올해는 약 20일 늦어졌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부산 지역의 최근 평균 기온이 평년대비 0.8도 낮았고, 일교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져 모기의 활동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반적으로 6월에 남부지역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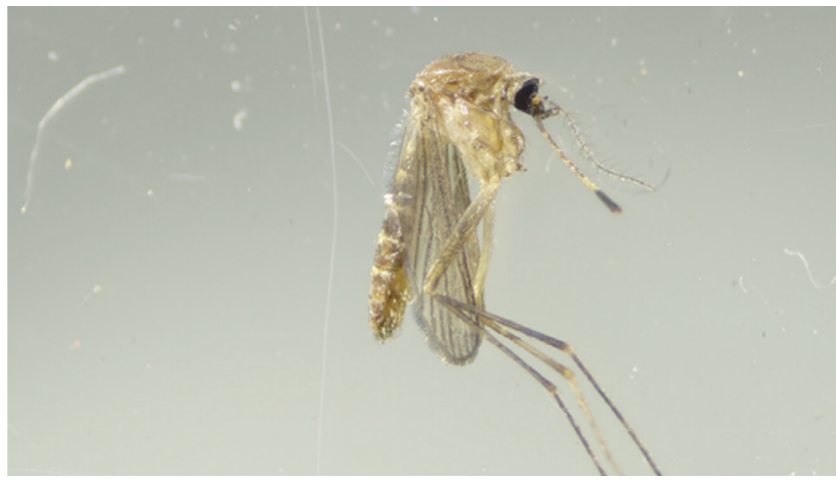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250명 중 1명 정도 임상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약 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엔 23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일본뇌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



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게 도움이 된다.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며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어서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과 고위험군은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를 회피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나주경찰, 모범운전자회 초청 치안설명회 개최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지난 8일 경찰서 4층 이화마루(대회의실)에서 나주시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안전한 나주 만들기, 시민과 함께 하는 치안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기동취재본부



담양소방,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등 집중 홍보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통한 재산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아파트별 해당되는 피난설비 사용법을 집중 홍보한다고 8일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완도해경, 잇따른 섬마을 응급환자 긴급이송에 구슬땀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완도 섬마을에서 응급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긴급이송에 나섰다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대형산불 대비 합동 훈련 실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철도)는 '봄철 건조한 기후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예방 교육 및 진화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산불위험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광주 광산구 첨단2동 공동체 함께 '거리전시관' 만든다

광주 광산구 첨단2동 주민과 학교, 행정기관이 함께 마을의 매력을 전할 '거리전시관'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형택기자



'광주 광산구 이주노동자들의 땀찬!' '아시아FC' 창단

광주 광산구에서 이주노동자 축구팀이 탄생했다. 이름하여 '아시아(ASIA)FC'.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하나로 뭉쳐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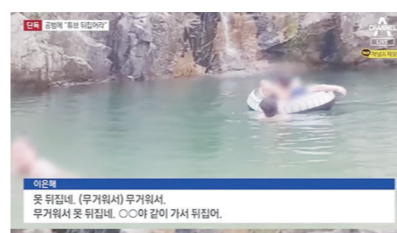
임형택기자



동물단체, 개식용 금지 촉구 퍼포먼스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시민단체가 1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면을 쓰고 개식용 금지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가평 계곡 살인 이은혜 고유정과 차원이 달라 더 큰 범죄 있을 수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은혜씨에 대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유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막살인' 사건 가해자 고유정과 차원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은혜에 대해 말했다. 그는 물놀이 동영상 등에서 나타난 이씨의 반응에 대해 "전혀 공감능력을 읽을 수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갈갈대는 웃음소리는 공포조차 잘 공감이 안 되는 공포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이씨) 주류의 정서로 읽힌다"라며 "공포에 대한 둔감성으로 결국 타인에게 잔혹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사이코패스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거하고 기사를 해 봐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내용만 토대로 해도 정상적인 범주 내에 정서 경험이 있지 않다"며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유형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전 남편을 토막살인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과 이은혜를 비교했다. 그는 "이 둘의 범행 동기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고유정은 일종의 불만 표현 범죄인 반면 이은혜는 분노, 공포 등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고유정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일종의 분노에 기인한 것이 범행동기였다면 이은혜는 그냥 도구처럼 '저 사람을 빼뜨려서 그로 인한 이익을 얻겠다', '이 남자와 함께 저 사람을 없애겠다' 이런 감정이 있었다"라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도구적 살인'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이 경계선 성격장애라면 이은혜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에 해당된다는 의심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외에도 이씨에게 불거진 여러 의혹들을 두고 "규모가 생각보다 큰 범죄의 단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정위 "옥시·애경 조정안 거부 유감...추가협의 요청"

"기업 부동의 알려지면서 논의 진전 안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내놓은 최종 조정안에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애경이 반대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조정위는 11일 "당초 주도적으로 조정을 요청했던 일부 기업 측에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표명해 애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부동의가 알려지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위는 "조정금액의 6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이 부동의의 함에 따라 조정안이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있다"며 "두 기업이 부동의 사유로 들고 있는 분담 비율과 관련,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리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자체 협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옥시와 애경은 조정위가 내놓은 최종 조정안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조정위에 서면 제출했다. 옥시와 애경이 피해보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1.35%로 절반이 넘는 다. 참여 기업은 롯데쇼핑·애경산업·이마트·SK이노베이션·SK케미칼·LG생활건강·GS리테일·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 등 9개 기업이 다.

이에 조정위는 옥시 다음으로 피해구제분담금 비율이 높은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등 기업에 분담금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지만, 정해진 분담금 비율을 넘어서는 부담할 수 없다는 답변이 기업들로부터 돌아왔다. 설명이다.

조정위는 "조정안이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곧바로 조정의 불성립을 판단하기 보다는 마지막까지 조정 성립을 위한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조정위는 부동의의 기업에 의사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한편 추가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이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관련 기업 모두에게 사회적 책임의 연대 이행이라는 시각에서 분담비율 조정 관련 추가 협의를 요청한다"며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짧지만 남은 20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위 활동은 연장되지 않는 이상 오는 4월 말 종료된다.

한편, 조정위가 지난달 28일 내놓은 최종 조정안에는 피해자 유족에 최대 4억원, 고도 피해자들과 최종증(초고도) 피해자들은 연령에 따라 최대 4억여원과 5억여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선욱기자